

# 남북전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북부의 총력전을 중심으로 -

박 계 호\*

1. 머리말
2. 총력전에 관한 이론과 발전
3. 남북전쟁 시 북부의 총력전
4. 맺음말

## 1. 머리말

『손자병법(孫子兵法)』 제1편 시계(始計)에는 ‘전쟁은 국가의 커다란 일로써 삶과 죽음이 여기 있으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는 글귀가 나온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손자가 강조하였듯이 전쟁은 국민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일로 국가지도자(이하 지도자)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와 외교, 군사 등을 활용하여 이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총력전(Total War, 이하 총력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를 통합하고 지도해서 승리해야 한다.

총력전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

\* 육군대령, 육군대학 교관 및 평가실장 근무, 충남대 박사과정 수료

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총력전 양상이 나타나서 그 양상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1)</sup> 남북전쟁은 미국이 1766년 독립이후 85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노예제도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4년이 넘게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북부가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고 총력전으로써 승리하였다.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나 6·25전쟁 시 남북한도 승리를 위하여 총력전을 실시하였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총력전 연구는 미흡하다. 총력전에 관한 책자는 1935년에 독일의 루덴도르프 장군이 작성한 것을 1975년에 번역한 『국가총력전』, 일본인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가 작성한 것을 1975년에 번역한 『현대총력전』, 1981년 '코우케츠 아즈시(纈纈 厚)'가 작성하였으나 아직 번역되지 않은 『총력전체제연구』,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사 같은 전쟁사 책자에서 총력전을 일부 소개하는 정도로 포함하고 있을 뿐<sup>2)</sup> 국내에서 별도로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자는 없다. 또한 총력전 관련 학위논문도 찾아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연구된 일부의 논문이 군사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sup>3)</sup>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 1) Raymond Aron, *The Century of Total War*(Boston: The Beacon Press, 1960), p.19.
  - 2) 총력전 내용을 포함하는 전쟁사에 관한 책자로는 육군대학, 『세계전쟁사(상)』(대전: 육군인쇄창, 2004); 육군본부, 『20세기 전쟁양상』(대전: 육군인쇄창, 2002); 정하명 외, 『세계전쟁사』(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와 번역서로는 마틴 폴리, 박일송 옮김, 『제1차 세계대전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8); 존 키건, 조행복 옮김, 『제1차 대전사』(서울: (주) 청어람 미디어, 2009) 및 류한수 옮김, 『제2차 대전사』 등을 참조. 그 외 원서로는 Jeremy Black, *The Age of Total War 1860~1945*(London: Prager Security International Inc. 2006); N. F. Dreisziger, *Mobilization for Total War*(Ontario: Wilfre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0) 등을 참조
  - 3) 한국에서 총력전에 관한 연구는 종전에는 주로 (구)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 「비상대비논총」에 일부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현재는 이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개별적인 총력전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하재평, 「한국전쟁시의 국가총력전」, 『군사』, 제3호, (서울: 신오성기확인쇄사, 2001); 장형섭, 「근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제국 국방방침」, 『군사』, 제70호, (서울: 신오성기확인쇄사, 2009) 등이 있기는 하지만 총력전

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만약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총력전 양상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남북전쟁시의 북부의 총력전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는 남북전쟁의 승패원인을 군사사 측면에서 북부 군사지도자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남부군 수뇌부의 군사 지도력을 비판하는 관점의 글이 있기는 하지만,<sup>4)</sup> 아직 총력전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총력전에 관한 이론의 발전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북전쟁 시 북부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지, 정치와 외교, 재정 및 경제, 상비군사력, 예비전력,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을 총력전 관점에서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총력전에 관한 이론과 발전

### 1) 총력전의 개념 및 기원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총력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로 이해가 된다. 현대전에 있어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한 전투의 승패는 군인들에 의해 좌우되지만 국가의 존망과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모든 요소들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전 국민들의 참여는 승패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국가의

---

의 본질을 연구한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력, 예비전력 등 총력전 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4)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 107호, (한국서양사학회, 2010) 및 「남부연합군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18집, (한국미국사학회, 2003) 참조.

존망과 전쟁의 승패는 국민이 얼마나 승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그 정도에 따라 좌우되며, 그것은 곧 총력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총력전이란 국가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총력전이란 용어가 책자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저술한 『전쟁론(Vom Krieg, On War)』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sup>5)</sup> 1차 대전 중 프랑스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수상이 1917년 7월 22일 의회연설 중에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한다.<sup>6)</sup>

총력전 양상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화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sup>7)</sup> 총력전 양상은 이미 남북전쟁으로 그 기원을 찾아올라갈 수 있지만, 이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등장한 것은 1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이 1935년 그의 저서 『총력전(Der Totale Kriege)』에서 사용하면서부터이다.<sup>8)</sup>

즉, 루덴도르프 장군은 그의 저서에서 “1차 세계대전은 과거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쟁 당사국의 군대는 서로 상대방 섬멸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자신들도 (전투장비나 탄약과 물자의 생산, 정비나 보급 및 수송, 의무지원 등 다양한 전투근무지원 활동을 통해서) 전장수행

5) Richard A. Preston & Sydney F. Wise, *MEN IN ARMS* (New York: Prager Publisher, 1970), pp.240~241.

6) 가토 요코, 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과주: 태학사, 2003), pp.190~191. 이 책자에 의하면 프랑스의 '레옹 도데'가 간행한 「총력전론」에서 프랑스의 클레망소 수상이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7) Roger Chicker, 「World War I and the Theory of Total War: Reflection on the British and German Cases 1914~1918」, *Great War, Total Wa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36. 총력전의 양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처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총력전 양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최초로 나타났다고 하였지만, 미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남북전쟁이 그 기간이나 목표 및 양측 경제력의 동원정도에도 불구하고 총력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남북전쟁을 근본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8) Erich von Ludendorff, 최 석 번역, 『국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2), pp.20~21.

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전쟁은 자신에게로 지향되었다. 국민들은 전력을 다하여 군의 후방을 담당하고 …”라고 하여 바야흐로 총력전이 국가 간 전쟁 양상을 지배하게 됨을 표현하였다.<sup>9)</sup>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도 프랑스가 독일군의 침공으로 1940년 6월 13일 항복하자 “어떤 비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얼마나 길고 어려울지라도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다”라고 전쟁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영국의 모든 자원은 물론 미국의 지원까지 최대한 이용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로 승리하였다.

## 2) 총력전 등장 배경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생산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수공업 위주에서 기계가 발명되고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방식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쟁방식에서도 변화를 촉진하였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철강생산에 대한 새로운 공법과 기술이 발전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량의 무기와 탄약의 생산이 가능해 졌다.<sup>10)</sup> 철도가 건설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병력과 전투장비와 물자를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관총과 전차와 비행기, 잠수함이 전장에 등장하였고,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구경의 포병화기와 폭발력이 강한 탄약 및 신관의 발전으로 포병이 위력을 발휘하였고, 전차와 항공기, 포병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의 발전으로 전쟁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전투장비와 탄약이 개발 및 사용되고 여기에 새로운 전략

9) Ludendorff, 『국가총력전』, pp.20~21; Evan Mawdsley, *World War II*(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46~47.

10) Preston & Wise, *MEN IN ARMS*, pp.241~243.

과 전술의 발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하면서 단순히 기존의 상비 및 예비전력 등 군사 분야의 우세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비군사적인 분야도 군사 분야와 결합하여야만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군인은 전투원(Combatants)으로서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또한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비전투원(Non-Combatants)으로 전투장비와 탄약과 물자의 생산과 정비 및 보급, 의무와 수송 등 전투근무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장비와 탄약, 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동원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구도 신설되거나 확장되었다. 정부나 군대, 국민의 모든 행위와 활동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제되고 관리되며 운영되는 등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는 제조업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의 기반이 갖추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총으로부터 기관총은 물론 화포, 초기단계의 어뢰나 기뢰 등이 발명되고 적을 탐지하고 관측하기 위해서 초보적인 정찰기구가 사용되었으며, 초기단계의 잠수함이 등장하여 해전에서 사용되었다.<sup>11)</sup>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 및 물자가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여 천문학적인 전비가 소요되는 전쟁

11) Aron, *The Century of Total War*, p.19.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총력전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즉, 남북전쟁에서는 새로운 발명과 제조업의 발전으로 신무기와 대포가 사용되었고 더불어 탄약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전신도 사용되어 지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부비트랩(Booby Trap)'도 사용되었다. 새로운 발명품들이 전장에서 활용되었고, 국가의 모든 자원들이 무자비하게 동원되었다. 이런 점을 들어 남북전쟁을 총력전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Paul Kennedy는 남북전쟁이 20세기적 차원에서의 산업화한 첫 번째의 총력전으로써, 그 이유를 남북의 인구와 자원의 불균형, 산업생산능력의 차이, 전비조달에 있어서의 남부의 불리함 등으로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New York: Random House, 1987), pp.179~182.

으로 변하면서 북부는 승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전쟁양상은 1·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 정치와 경제, 외교, 군사,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총동원(Total Mobilization)과 총력전체제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느 국가가 이러한 총력전 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그 역량이 크지에 따라 승패는 결정되었다.

### 3) 총력전관련 주장 및 영향요소

#### (1)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루덴도르프 장군은 1차 세계대전에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가 지휘하는 독일군의 1군단 참모장으로서 참전하여 1914년 8월 타넨베르크(Tannenberg)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대파함으로써 힌덴부르크 장군과 더불어 독일국민의 우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제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6년 말 힌덴부르크가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 장군의 뒤를 이어 참모총장이 되자 루덴도르프 장군은 참모차장(병참감 겸무)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1차 대전에서의 경험과 국방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정리하여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수년전인 1935년에 『총력전(Der Totale Kriege, Total War)』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다.

그는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국가의 경제력 및 지도자를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sup>12)</sup> 그는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관련하여 “총력전에서 군대의 강약은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강약에 의해 좌우되며, 국민의 정신력은 대단히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생존투쟁에 필요한 단결력을 군과 국민에게 부여하고, 또한 국민존망을 위하여 전쟁에서 최후의 결정을 주는 것이다”고 하였다.<sup>13)</sup>

12) Ludendorff, 『국가총력전』, pp.11~14.

13) 위의 책, pp.35~37.

그가 언급한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지속능력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 장비와 탄약과 물자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군수공업과 국민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 연료의 공급, 재정동원과 화폐수급 조절을 통한 전비조달을 말한다.<sup>14)</sup>

총력전을 수행할 지도자는 국가의 '총수(總帥, Feldherr)'로서 총수는 평시 국민적 단결을 기초로 총력전 수행을 위하여 재정과 경제동원을 준비하고 식량과 연료, 생필품 등 국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군대가 전쟁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준비 등 전쟁준비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였다.<sup>15)</sup>

〈표-1〉 루덴도르프가 주장한 총력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정신적 단결	군대의 강약은 국민의 정신적 단결에 의해 좌우됨 ※ 총력전의 중심은 국민임
국가의 경제력	재정동원과 전비조달, 무기·탄약·식량 등의 생산과 조달, 전쟁지속을 위한 연료 확보, 전시 군수공업의 문제 등
지도자	전쟁지도자(총수)로서의 자질(두뇌, 의지, 담력)과 전쟁지도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총수의 역할 등

출처: 루덴도르프 저, 최 석 번역, 『국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2)

## (2) 다카하시 하지메의 현대총력전

일본인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는 1975년 『현대총력전(現代總力戰)』에서 현대전에 있어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요소를 무력과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으로 구분하였다.<sup>16)</sup> 무력(武力)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병력을 기초로 장비와 물자 등을 포함하는 상비전력을

14) 앞의 책, pp.69~85.

15) 위의 책, p.214; Mawdsley, *World War II*, p.47.

16)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역, 『현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5), pp.88~89.

말하며, 정치(政治)전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의 전쟁지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력이고, 사상(思想)전력은 승리를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력이며, 경제(經濟)전력은 전쟁지속을 위한 경제적인 힘과 능력을 말한다. 다카하시는 총력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전력들이 상호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2〉 다카하시 하지메의 총력전력 구조

구분	무 력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
내용	상비군 (인적·물적 자원)	사회·정치구조 좋은 정치 전쟁지도 능력	장수기능 군대의 武德 국민정신 국민여론	국토넓이, 인구규모, 국민 경제 구조, 전시경제 규모, 전시국민생활, 전시무역, 정치력

출처: 다카하시 하지메 저,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번역, 『현대총력전』(공화출판사, 1975), pp.113~235(요약).

### (3) 코우케츠 아츠시의 『총력전체제연구(總力戰體制研究)』

일본의 '코우케츠 아츠시(纈纈 厚)'는 『총력전체제연구(總力戰體制研究)』 책자에서 총력전의 내용과 특징을 무력전의 성격의 변화와 경제·공업동원 비중의 확대, 사상·정신동원의 중요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sup>17)</sup>

그는 무력전의 성격을 적을 섬멸하는 '섬멸전략'과 군사력 소모를 강요하여 적의 전쟁능력을 마모시키는 '소모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섬멸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더불어 전략물자의 비축과 다수의 기간부대 유지, 병역기간의 연장과 공격적 병기체계, 군사자산의 증강을, 그리고 소모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을 전제로 결전 시까지 병력(예비전력)의 보존을 강조하였다.<sup>18)</sup>

경제·공업비중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전쟁형태에서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군수물자의 소요로 이를 생산하기 위해 공업생산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

17) 코우케츠 아츠시(纈纈 厚), 『總力戰體制研究』(東京: 文永印刷株式會社, 1981), pp.12~13.

18) 위의 책, pp.96~97.

며,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의 발생, 전·후방 식별 곤란, 국민에 대한 가혹한 조건의 부과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이 대단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상과 정신동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4)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의 국가총력방위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기본교리』에서는 국가총력방위(國家總力防衛)의 요소를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 정치·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 및 문화를 제시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고유역량과 총력전 요소의 활동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하여 국내외로부터 위협과 무력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총력전』이나 『현대총력전』, 『합동기본교리』, 『총력전체제연구』 모두에서 총력전을 위한 제 요소를 대체적으로 상비군사력이나 예비전력, 경제력과 같은 유형적 요소와 더불어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정신력과 같은 무형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총력전에서 승리는 어느 한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위(Absolute Superiority)'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조화(Harmony)'되어야만 가능함을 총력전의 역사가 시작된 남북전쟁으로부터 1·2차 세계대전과 중동전이 증명하고 있다.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비군사력이나 예비전력, 경제력과 같은 유형적인 분야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결연한 의지나 과학기술력, 사회문화적 요소 등 무형적인 분야에서의 우위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시 국력의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9)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서울: 대한기획인쇄, 2009), pp.32~33.

### 3. 남북전쟁 시 북부의 총력전

#### 1) 당시 미국의 일반정세

남북전쟁은 남북 간의 대립원인이 되었던 노예문제가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부인에게는 그들의 재산이자 노동력 제공의 핵심인 노예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그들은 연방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sup>20)</sup>

1860년 11월, 합중국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링컨후보가 당선되자<sup>21)</sup> 그해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제일 먼저 연방을 탈퇴하였고<sup>22)</sup> 이어서 연방을 탈퇴한 남부의 앨라배마, 미시시피 주 등 6개 주는 서로 연합하여 1861년 2월 4일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모여 '아메리카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CSA, 이하 남부 연합)'을 조직하고<sup>23)</sup>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데이비스(Jefferson Davis)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sup>24)</sup>

20) 정미선, 『전쟁으로 읽는 세계사』 (서울: 은행나무, 2010), pp.242~243. 남부 대통령 데이비스는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는 이유를 첫째,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남부가 북부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남부인들의 피해의식과 둘째, 북부가 주도하는 의회가 남부인 생활방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셋째는 노예가 해방되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나 백인여성에 대한 겁탈 등으로 남부가 광란의 상태로 된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남부는 연방을 탈퇴해야만 노예해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21) James Street, *The Civil War*(New York: Dial Press, 1953), p.18. 당시 대통령 후보에는 4명이 있었다. 공화당의 링컨 후보, 민주당에는 더글라스(Douglas)와 브레킨리지(Brekinridge), 그리고 존 벨(Jones Bell) 등 3명의 후보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링컨후보가 186.6만 표, 민주당의 더글라스 후보가 137.5만 표, 브레킨리지 후보가 84.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링컨이 당선되었다.

22) Archer Jones, *Civil War Command and Strategy*(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1~2. 당시 남부 연합이 연방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부캐넌(James Buchanan) 대통령은 남부 연합의 불법성을 비난하였지만, 미 육군은 병력이 소규모(16,000여 명)로 이를 저지할 힘이 없었다.

23) Street, *The Civil War*, pp.26~27. 텍사스 주가 1861년 4월 23일 추가로 합류함으로써 7개주가 되었다.

24) Jay W. Simson, *Naval Strategy of the Civil War*(Tenn. : Cumberland House Publishing Inc. 2001), p.11;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서울: 궁리출판, 2006), p.33. 당시 미 대통령은 부캐넌(James Buchanan)은 미국이 노예문제로 남북으

연방정부와 남부연합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갈등은 마침내 1861년 4월 12일 새벽 연방군이 수비 중이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섬터요새(Fort Sumter)에 남부연합군(이하 남부군)이 포격을 가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전쟁(Civil War)은 시작되었다.

〈표-3〉 1861년 개전당시 북부와 남부연합의 비교<sup>25)</sup>

구 분	북부 연합	남부 연합
지도자	Abraham Lincoln	Jefferson Davis
참여 주	18개주	7개주(1861년: 4개주 추가)
인 구	1,850만여 명	900(이중 흑인 350만)만여 명
생 산 액	15억 달러	1.55억 달러
제조업체	10만여 개소(노동자 110만)	2만여 개소(노동자 11만)
철도길이	20,000마일	9,000마일

출처: 신태영, 『아메리카 전쟁』 (서울: 도남서필, 1987), p.193.

남북전쟁은 1·2차 대전이나 중동전, 한국전과 같은 국가 간의 이념적 대립이나 종교·민족적 대립 등이 아닌 한 나라에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같은 제도권 안에서 노예해방이라는 특정한 문제가 갈등을 야기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sup>26)</sup>

로 분리되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링컨 행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5) 남북전쟁 당시 인구에 관한 자료는 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Paul Kennedy는 1860년 미국의 인구를 3,140만 명(*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78)이라고 하고 있고, James Street는 북부의 인구가 2,195만여 명으로 남부는 850만여 명(*The Civil War*, p.42)이라고 하고 있다. 〈표-3〉에서는 1861년의 인구를 2,750만 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유럽 이민자들의 계속되는 유입과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인구 통계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가 중요하였던 이유는 당시 대량의 병력과 물자를 철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부는 철도를 따라 전선을 가설해서 지휘용이나 군수지원을 요청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26) Donald Snow, 권영근 옮김,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서울: 연경문화사, 2003), p.99.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잘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설과 북부지역의 산업 체제를 남부지역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여기에 당시 산업혁명의 여파로 대량의 무기와 탄약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남·북부군은 산업혁명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총력전을 실시, 치열한 싸움을 벌여 막대한 전비소요와 엄청난 인명의 손실 및 광대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노예해방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발했으나 북부 주민과 남부연합 주민의 싸움이었기에 국민전쟁의 성격을 내포했으므로 총력전의 기원이 되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정의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북부는 노예제도의 폐지와 연방정부의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고, 남부연합은 노예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분리 독립을 원했다.<sup>27)</sup>

남북 간에 타협으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링컨은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회담에는 자신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타협을 거부했고,<sup>28)</sup> 남부는 노예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원했으나 링컨은 이를 거부하였다.

남부연합과 북부에 있어 전쟁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타협은 양측의 현저한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남북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남부가 승리해서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방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sup>29)</sup>

---

의 갈등설, 각각의 주(州)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견 등으로 남북전쟁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남부와 산업에 기반을 둔 북부의 경제적 차이 및 남부의 노예제도가 북부로 확산될 경우 북부에서 자유로운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흑인노예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앨런 브링클리,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서울: 청아문화사, 2005), pp.124~125.

27)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28) Simson, *Naval Strategy of the Civil War*, pp.11~12.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인 맥퍼슨(James M. McPherson)에 의하면 노예문제에 관하여 링컨 대통령은 처음에는 중도적이었으며, 남부의 노예제도를 불법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29)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 2) 전쟁 경과 및 결과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남부군이 북부군의 섬터 요새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30)</sup>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남부가 오히려 선제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16,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연방군의 대부분은 인디언들과 전투를 위해 서부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75,000여 명의 지원병을 모집함과 동시에<sup>31)</sup>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남부의 해상을 봉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남부의 해상봉쇄를 명령하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sup>32)</sup>

이러한 지원병 모집 조치에 반발하는 남부외<sup>33)</sup>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때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켄터키와 메릴랜드, 미주리는 연방으로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와 버지니아는 남부연합으로 가담하였다.

북부군과 남부군의 전쟁은 1862년 7월의 불런(Bull Run) 강의 전투와 그해 4~7월의 리치먼드(Richmond) 전투, 1863년 7월 1~3일 남북전쟁의 최대전투라고 불리는 게티즈버그(Gettysburg) 전투<sup>34)</sup>와 1862년 12월~1863

30) Jones, *Civil War Command and Strategy*, pp.1~2.

31) 위의 책, p.2; J. F. C.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p.31~32. David Donald, 남신우 옮김, 『링컨 2』(서울: (주)살림출판사, 2003), p.25. 전쟁발발 초기에 링컨 대통령이 7만 5천여 명의 시민병을 소집한 것은 남부를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인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를 지지하였는데, 당시 링컨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어느 상원의원조차도 연방정부의 존속을 위해 링컨을 지지하면서 전국민의 단결을 주장하였으며, 민주당원에게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였다.

32) Brian H. Reid, *The American Civil War*(London: Cassel & Co, 2000), pp.64~65.

33) James M.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Civil War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276~277. 예를 들면 남부연합의 켄터키 주에서는 남부의 주를 진압하려는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병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테네시 주에서도 연방정부에 단 한명의 병사도 보낼 수 없지만 남부의 권리와 남부를 위해서라면 5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3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286.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은 88,289명이 참전하여 전사 3,155명, 부상 14,529명, 실종 5,365명이

년 7월 4일까지의 빅스버그(Vicksburg) 회전<sup>35)</sup> 등에서 일진일퇴를 하면서 진행되었다.<sup>36)</sup> 1864년 3월에는 북군의 그랜트(Ulysses S. Grant) 장군이 부대를 지휘하여 미시시피 강 전투에서 남부군을 격파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북부군이 남부의 모빌(Mobile) 항을 해상에서 봉쇄하여 유럽으로 목화수출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줄을 막고 탄약과 의류, 의약품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남부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마침내 1864년 5월 그랜트 장군이 북부군 총사령관으로서 대공세를 시작하여 차례로 남부도시들을 함락시키고 남부군의 마지막 저항거점인 애포맷톡스(Appomattox)마저 점령하여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의 리(Robert. R. Lee) 장군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 3) 북부군의 총력전 준비와 실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링컨이 당선되자 남북간에 노예해방 문제를 포함하는 잠재돼 있던 문제들로 인하여 남부의 여러 주정부가 연합하여 연방정부에 저항함으로써 시작된 남북전쟁에서는 최초로 총력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 전쟁에서는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과 재정 및 경제력, 과학기술력, 지도자의 리더십 등 이른바 총력전 요소들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sup>37)</sup>

---

발생하였으며, 남부군은 75,000명이 참전하여 전사 3,903명, 부상 18,735명, 실종 5,425명이 발생하였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35) 빅스버그 회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56 참조

36)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286~287에서 남북전쟁시의 주요 전투 기간과 참전인원 및 전·사상자, 실종자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참조

37)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3.

(1)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통합과 관용을 중시한 지도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특히 남북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같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는데, 그렇다면 링컨 대통령은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억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고 남북을 다시 연방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남부연합이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병력을 모집하여 군대를 만들고 연방정부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자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분리와 독립추진에 대하여 취임연설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사를 밝혔다.<sup>38)</sup> 링컨은 자신이 해야 할 정치적 목표가 연방정부의 붕괴를 막고 합중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sup>39)</sup>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북부군의 목표는 남부군을 항복시키고 남부연합 정부를 해산시켜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헌법이 북부연방의 입장에 있었고, 연방정부로부터의 남부의 이탈은 용인될 일이 아니었다. 만약에 어느 한 주의 탈퇴라도 용인해주면 도미노(Domino) 현상으로 연방탈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남부의 연방정부 탈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해야만 했으나, 그렇다고 북부군이 남부의 분리 독립을 억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링컨은 전쟁초기 단계에 민주당원들의 주도에 의해서 야기되는 광범위한

38) 한국미국사학회, 『자료로 읽는 미국사』, pp.163~166.

39) 김형곤, 『미국 대통령의 초상』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3), pp.71~74. 링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연방의 붕괴를 막으면서 보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의 목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갔다. 링컨에게 있어 남북전쟁은 민주주의 생존의 시험대로 보였고, 따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었다. 따라서 전쟁기간 중 취한 강력한 조치에 따라 때로는 폭군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연방정부 존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해야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반전인사들을 체포하여 신속히 재판받도록 하였고, 징집을 반대하거나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면 군법회의에 회부시켰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반란(Rebellion)’이라고 판단하여 의회에 선전포고도 요청하지 않은 채 병력을 전장으로 보냈으며, 정규군 확대와 남부의 해상봉쇄를 명하기도 하였다.<sup>40)</sup> 어떻게 보면 링컨의 이러한 조치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인 조치로 보일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연방정부의 붕괴를 막으면서 승리를 위한 신념에서 우려난 조치이기도 하였다.

노예해방 문제가 전쟁의 주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링컨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노예해방이 연방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남북전쟁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합법적인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노예해방은 1865년 1월 북부에서 수정헌법을 채택하여 전쟁이 끝나던 12월 각 주가 여기에 비준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다.<sup>41)</sup>

링컨이 처음부터 전쟁을 잘 지휘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 전쟁에 임하여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표가 없었고 그렇다고 유능한 지휘관을 식별해낼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그런 결과로 전쟁이 발발한 2년 동안은 거의 승리를 하지 못하였다.<sup>42)</sup>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가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링컨은 군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임명하였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링컨의 전쟁지도력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으나 그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 마침내 링컨은 그랜트 장군을 찾아 1864년 3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며,<sup>43)</sup> 그랜트는 이러한 믿음에 부응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

40) Jones, *The Civil War*, p.40: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서울: 청아문화사, 2005), pp.130~131. 당시나 지금이나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있다.

41)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170.

42)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114.

43)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8. 그랜트 장군이 처음부터 모든 전투에서 승리

끝었다.<sup>44)</sup> 링컨은 자신을 조롱하였던 민주당의 스탠턴(Edwin Stanton)을 전쟁성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와 물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여 승리로 견인하였다.<sup>45)</sup> 인재를 능력에 따라 선발하고 철저히 활용하는 링컨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본인도 주요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전신사무소(여기서는 War room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였음)에서 거의 살면서 전신(Telegraph)을 활용, 전쟁을 지휘하였다.<sup>46)</sup>

링컨은 전쟁 중 영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만약, 영국이 남부군을 지원한다면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영국의 개입 가능성에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 북부군의 남부해역 봉쇄를 존중하게 하였다.

링컨은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느렸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확신을 얻게 되면 옳은 방향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진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남부인에 대한 사면과 흑인노예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도 하였다.

링컨은 전후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전쟁이 끝나기 전인 1863년 12월에 재건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남부의 고위관리를 제외하고

---

를 한 것은 아니다. 그랜트는 링컨에 의해 선택되어 장군으로 진급되었고, 빅스버그 전투에서 대승으로 서부군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864년에는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링컨은 그랜트를 계속 비호하였다. 1864년 5월 리치먼드 전투에서 남부군에 대패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그랜트는 리 장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1864년 7월 링컨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시 사람들은 그랜트 장군이 후보로 더 되기를 바랐으나 그랜트는 자신을 믿어준 링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는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에 이어 18대 대통령으로서 재임(1869. 3. 4~1877. 3. 4)하였다.

44)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85. 그랜트 장군은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이른바 섬멸전략(Annihilation Strategy)을 구사하여 북부가 승리는 하였지만, 대규모의 사상자 발생으로 이른바 도살자(Grant the Butcher)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45) Doris K. Goodwin, 이수연 옮김, 『권력의 조건』 (서울: 21세기 북스, 2007), p.11. 공화당 출신인 링컨 대통령은 유능한 라이벌들을 당파에 구분 없이 등용하였다. 민주당 출신으로 웰스(Guidan Wealth)는 해군장관, 블레어(Montgomery Blare)는 우정장관, 스탠턴(Edwin Stanton)은 전쟁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 예이다. 링컨의 자신감과 판단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6) Eliot Cohen, 이진우 옮김, 『최고사령부』 (서울: 가산출판사, 2002), pp.54~57.

는 연방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노예제 폐지를 받아들이면 일반사면을 하겠다고 하였다. 전쟁이후 미국의 통합과 폐허가 된 남부의 재건 및 남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조기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사실 전쟁이 끝나면 북부의 공화당 출신들은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막아준 것이 링컨이었던 것이다.<sup>47)</sup>

국민들은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의 열성에 감동을 하였고 존경심을 표했으며, 그는 국민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였다. 링컨은 그런 신념으로 전쟁을 지도하였으며, 북부의 주민들은 이에 동조하여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인 반대세력과 전투를 하였고, 마침내 미국에서 노예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링컨의 리더십은 국민이나 야당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득하였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정직과 진솔함의 정치를 하였으며, 노예해방을 추진하면서 결코 정치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융통성과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링컨의 탁월한 리더십이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오늘날 링컨에 관하여 저술된 책만 7,000여 권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링컨의 업적에 대한 위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47) James Taranto, 최광열 옮김, 『미국의 대통령』 (서울: 도서출판 바움, 2008), p.125.

48) Donald, 『링컨 2』, pp.77~83. 본 논문은 링컨의 리더십을 승리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링컨이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것은 아니다. 전쟁기간 중 링컨은 당시 국무장관, 공화당원 등 사방으로부터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비난도 받았으며,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등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력한 반면에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49) 또 다른 책자에서는 링컨에 관한 책자가 16,000권, 남북전쟁에 관한 책은 5만여 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의 역사가인 도널드(David Donald)는 “남북전쟁에 직접 참여한 장군들의 수보다 이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더 많다. 장군들보다 역사가들이 더 호전적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강준만, 『미국사 산책 3: 남북전쟁과 제국의 탄생』 (서울:

한편 남부의 지도자 데이비스는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자 그는 남부의 각 주가 요구하는 주장에 따라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을 분산 운용해야만 하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전력을 집중하여 운용할 수 없었다.<sup>50)</sup> 여기에서 그는 민간관료들은 물론 군부의 장성들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불협화음으로 남부연합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다.<sup>51)</sup> 여러모로 링컨과 대조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비록 남부에 리 장군이 있어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을 장수가 채워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 (2) 링컨 행정부를 지원한 북부 연방의회 정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전이였다. 당시 북부의 일부에서는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연방의 분리를 막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남북전쟁은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처음으로 연방을 탈퇴하였고, 이어서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주가 연방을 탈퇴하여 1861년 2월 4일 앨라배마에서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헌법을 채택하면서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sup>52)</sup>

남부군이 연방군 섬터 포대에 대한 포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연방의회

인물과 사상사, 2010), pp.56~57).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전쟁과 이를 주도하여 승리로 이끈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그만큼 미국인의 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0)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61.

51) 이주천, 「남부연합군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p.96.

당시 남부에서는 국무장관 2명과 국방장관 3명이 대통령과 갈등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임함으로써 갈등이 포출되는 내용을 겪었다.

52)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p.119. 남부 6개주의 연방탈퇴 선언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1862년 3월 4일)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이던 부캐넌이 남부 6개주의 연방탈퇴를 방지해야만 되었으나 그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링컨이 취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는 민주당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징병법을 제정하여 병력충원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전투를 위한 장비나 물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북부군이 승리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연방의회에서는 전쟁기간 중 '전쟁집행위원회'를 만들어 링컨의 전쟁전략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북부군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만약 연방의회가 전쟁발발의 정치적 책임을 링컨에게 물어서 분란을 초래하였다면 전쟁승리는 물론 연방정부의 해체도 막지 못하였을 것이다.

링컨도 노예해방을 위한 원칙을 고수하여 남부의 분리 독립과 노예해방에 대한 막바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예해방은 유럽 도덕주의자들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도 주지 않았다. 비록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의 면화를 수입하여 남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남부의 노예제도를 동조해줄 수 있는 입장으로 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북부가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 정치적·윤리적·도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남부에서는 각주가 주의 권한(州權)을 주장하다보니 북부에 비하여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 (3) 유럽의 개입을 방지한 북부의 외교력

미국은 1823년 이래 이른바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의 식민지 대상이 될 수 없고, 유럽 국가들도 아메리카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미국도 유럽 국내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남북전쟁 개입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당시 유럽의 열강들이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한다면 북부의 연방정부로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됨은 분명하였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남부에 호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북부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영국이나 프랑스에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북부가 약화되기를 바랐던 것과, 또한 이들 국가들이 남부로부터 다량의 면화를 구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하면 북부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남부군이 사용할 무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북부군은 이를 차단하고자 남부의 면화수출 항구를 봉쇄하기도 하였다. 북부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부가 영국과 프랑스에 면화를 수출해서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되었다.

사실 남부는 열악한 경제기반과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타개할 목적으로 남부를 지원할 동맹국이 필요하였으며, 그 수단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면화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들 두 나라는 남부의 이런 뜻을 들어주지 않았다.<sup>53)</sup> 심지어 남부는 면화의 수출을 통제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남부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sup>54)</sup> 인도나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목화가 수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얻고자 외교관을 런던과 파리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영국 조선회사에는 상선을 가장한 전투용 선박을 주문도 하였다. 어떻게 하든 영국이나 프랑스를 남부 편으로 가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인지한 북부는 영국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남부를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링컨 대통령의

53) 강준만, 『미국사 산책 3: 남북전쟁과 제국의 탄생』, p.95. 당시 영국은 면화 수입량의 70%를 미국 남부로부터 수입하여 방직사업을 하면서 4~500만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 남부로부터 면화수입이 중단되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남부는 이러한 영국의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에는 면화재고가 충분히 있었고, 인도와 이집트 등지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의 계산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영국에 흉년으로 면화의 수입보다 북부에서 생산하는 밀이 더 필요한 이유도 있었다.

54)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p.116~117.

강력한 경고 외에도 당시 국무장관도 만약 영국이 남부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55)</sup>

남부는 유럽의 지원을 받고자 여러 노력을 했지만, 남북전쟁이 유럽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국제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문제로서 미국은 유럽문제에 관심이 없으니 유럽도 미국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다.

당시 남부연합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영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남부를 지원하고자 유리한 정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끝내 남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부를 지원할 명분이 없었다. 또 영국의 동향에 따르던 프랑스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 환경이 북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1863년 1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함으로써 북부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의 대의명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국제적으로 노예제도에 반대하던 남부연합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영국도 남부군을 더 이상 지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프랑스도 영국을 따르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남부가 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할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양국이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던 남북전쟁을 국내전쟁으로 국한시킨 것은 북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남부를 압도한 북부의 재정·경제력

미국의 산업은 1820년대로부터 1830년대에 이르는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남북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대부분 북부군의 지역인 북동부에 위치하여 공산품의 2/3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기간

55) 차상철, 『미국외교사』 (서울: 비봉문화사, 1999), pp.161~163.

중 북부지역의 공장에서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공작기계를 제작하고 절삭기를 발명하여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다.<sup>56)</sup>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풍부한 자원으로 북부의 산업이 제조업 위주로 발달하여 농업위주의 남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인적자원 면에서도 북부는 인구가 2,000만여 명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남부는 흑인노예를 포함한다고 해도 900만여 명에 불과함으로써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sup>57)</sup>

전쟁이 발발하기 전년도인 1860년 북부에는 풍부한 인력과 자원 및 자본을 바탕으로 10여만 개의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부에는 2만 여개에 불과한 업체들이 그나마도 대부분 북부로부터 기술과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철강도 북부의 펜실베니아 한곳에서만 연간 58만 톤을 생산할 무렵 남부는 고작해야 3.7만여 톤을 생산할 정도였다.<sup>58)</sup>

매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 2곳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가 남부연합 전체가 생산하는 상품가격의 두 배를 넘었으며, 매사추세츠 주 한곳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남부 11개 주의 생산량보다도 많았으며, 뉴욕 주에서만 해도 연간 3억 달러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남부의 미시시피나 루지아나와 앨라배마, 버지니아 등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4배나 많을 정도였다.<sup>59)</sup> 이렇게 북부는 풍부한 자원과 제조업의 발전에 힘입어 미합중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능력이나 경제력에서 남부를 압도하고 있었다.

당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철도는 북부지역에 2만 마일을 건설되었고 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지만, 남부지역은 9,000마일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여 북부가 소총을 생산할 수

56)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p.472~474.

57) 미국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790년에는 약 400만 명, 1820년에는 1,000만 명, 1830년에는 1,300만 명, 1840년에는 1,700만 명, 1860년대에는 3,000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구는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 외에도 유럽으로부터 지속적인 이민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58)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59) *ibid.*

있는 시설을 대폭 확장, 170만여 정을 생산하는 동안 남부연합은 시설의 미비로 소량을 생산하였고, 북부에는 선박용 동력기관을 생산하는 시설이 수십 개인데 비하여 남부에는 이런 시설도 없었다.<sup>60)</sup>

이런 산업생산력의 차이로 북부 해군은 671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236척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건조된 증기기관식 선박으로 이 군함들이 미시시피 강과 테네시 강에서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등으로 활용되어 철도와 더불어 북부군의 작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북부는 전쟁기간 중 7,800여 문 이상의 야포를 생산하여 북부군에 보급을 하는 동안, 남부는 비록 원자재를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야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지만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sup>61)</sup>

북부가 풍부한 지하자원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발전하였는데 비하여 남부는 목화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나 경제면에서 불리하였으며 결국 이것은 전쟁을 지속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북부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전비를 조달하고 소총과 야포나 함정 등의 전투장비와 군수물자 생산량을 늘리고 철도와 증기기관을 이용한 선박으로 적시에 병력을 수송하고 물자를 보급하는 동안, 남부연합은 전투장비나 군수물자의 생산은 물론 보급과 이를 수송할 철도나 증기선 등 모두가 부족하여 남부군이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욕을 좌절시켰다.

북부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만드는 등 세금을 징수하거나 공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전비를 조달하면서도 경제를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 기간 중 탄약의 생산뿐만 아니라 철도건설, 철강생산, 농업생산 등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하여 전쟁이 끝날 무렵에 북군병사들은 미 육군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물자를 보급 받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60) *ibid.*

61) (주)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서울: 전광인쇄정보, 2004), pp.188~189.

할 정도였지만, 반면에 남부는 면화수출 차단으로 인한 전비조달의 어려움과 화폐남발로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야기시켜 경제가 파탄이 났다.<sup>62)</sup>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전쟁은 어느 편이 전쟁수행을 위하여 대량으로 소요되는 장비와 탄약 및 물자를 생산하여 적시에 보급을 할 수 있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북부는 재정이나 경제적인 우위에서 이런 이점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sup>63)</sup> 반면에 남부연합군은 전쟁기간동안 물자의 부족으로 어려운 전쟁을 해야만 되었다.<sup>64)</sup>

전쟁기간 중에 남부에서는 식량공급 부족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였다. 남부에서는 밀가루가 부족하여 당시 남부군 봉급이 10달러일 때 밀가루 1배럴이 80달러에서 연말에는 200달러가 되었고, 한 때는 800달러까지 치솟아 남부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sup>65)</sup> 주민들은 입을만한 옷을 700달러 이하에서 살 수 없어서 누더기 옷들을 입어야만 하였고, 매일 밤에는 소와 돼지, 가금류 등의 도난도 빈발하였다.<sup>66)</sup> 면화수출도 북부의 해상봉쇄로 차단되어 전비조달마저 어렵게 되자 남부의 전쟁성(War Department) 관료는 국가의 재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sup>67)</sup> 전쟁이 지속되면서 남부연합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주민 생활도 곤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폭동도 발생하였으며, 전쟁의 지속마저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북부의 총칼이 남부를 와해시킨 것 보다는 북부의 달러가 남부를 더 빠

62)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1.

63) 남북전쟁 당시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은 전쟁비용의 조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전쟁에서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였다. 당시 남북이 1861년으로부터 186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입한 전비는 북부가 약 31.83억 달러(2008년도 가격으로 약 451.9억 달러)이고, 남부연합이 투입한 전비는 약 10억 달러(2008년 가격으로 152.4억 달러)로 총 41.8억 달러(2008년도 가격으로 604.4억 달러)에 달하였다.(미 국무부, Stephen Daggett, *CRS Report for Congress: Cost of Major U.S. Wars*, 2008. 7. 24, p.2). 많은 전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부가 남부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6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33~34.

65) 박정기, 『남북전쟁(상)』(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pp.172~173.

66)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Civil War Era*, p.691.

67) Street, *The Civil War*, pp.48~49.

르게 정복하였다”는 어느 남부군 장교의 탄식은 당시 남부연합 주민생활의 어려움, 재정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곤란 등을 표현한 말이다.

#### (5) 초기의 열세를 극복한 북부의 군사력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 육군의 정규군 병력은 1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는 작았다. 이렇게 미국이 정규군 병력을 많이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던 이유는 영국식 군사전통인 상비군의 증대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대륙과 분리되어 유럽대륙에서처럼 열강들과의 전쟁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초기단계에는 남·북부군 공히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북부의 준비가 미흡하여 지휘관이나 병력의 규모에서 남부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 북부군에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없지 않았으나, 남부군 출신중에 다수의 장교들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군사적 경험을 이용하여 지휘하였다. 링컨이 연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원했던 리(Robert E. Lee) 장군은 남부군 사령관으로 갔고,<sup>68)</sup> 그 외에도 경험이 많은 장군들도 남부연합에 가담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부군은 정치가 출신이나 군사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휘관을 맡아서 부대를 지휘하다보니 초기단계에 자주 패할 수밖에 없었다.<sup>69)</sup>

전쟁이 진행되면서 1862년 4월까지의 전투에서 북부군은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였다. 병력의 규모나 이를 지휘할 지휘자들의 경험 등에서 남부군에 비하여 불리하였던 것이다. 1863년에 제정된 징병법의 불평등으로 부자들은 돈(300달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징집시키자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징집반대 시위가 폭동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sup>70)</sup>

68) 링컨은 리 장군에게 연방군 지휘권을 주고자 했으나, 리 장군은 자기 고향인 버지니아 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절하고 떠나서 남부군에 합류하였다. (Donald, 『링컨 2』, pp.28~29; 이주천, 「남부연합군의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 전략을 중심으로」, pp.124~125.

69) 박정기, 『남북전쟁(상)』, pp.34~36.

70) Street, *The Civil War*, p.89.

징집으로 북부군에 입대하였던 병사들 중에서는 20만여 명이 탈영하였고, 9만여 명의 북부인은 징집을 피해서 캐나다로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sup>71)</sup>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부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는 2,000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200만여 명을 동원하여 남부군과 전투를 벌인 결과 36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승리하였다.

여기에 북부는 노예해방을 목적으로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흑인도 14만여 명을 전투원으로서 또는 병참이나 보급부대 등에 편성하여 연방군복을 입히고 전투에 참여시켰는데, 이를 두고 링컨은 훗날 흑인병사들이 전세를 바꾸어 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72)</sup> 또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즉, 1861년으로부터 1865년까지 80만여 명에 이르는 이민도 유입되어 작은 힘을 보태었다.<sup>73)</sup>

반면에 연방정부의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남부의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지애나, 텍사스 등 남부연합은 900만여 명(흑인 350만여 명 포함)의 인구 가운데 백인위주로 100만여 명을 동원하여 25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패하면서도 흑인의 전투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오로지 백인들만으로 부대를 편성하였고, 백인만으로 전투를 하였지 북부처럼 흑인까지 동원하여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남부에서는 주권론(州權論)이 우세하여 전쟁을 하기위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출 수 없었고, 각 주는 자기 주 방어를 위해 병력을 운용하다보니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의 분산운용으로 치명적 패인을 제공하였다.<sup>74)</sup>

당시 남부군이나 북부군의 작전지역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주요 전투지역인 버지니아와 조지아 주 등의 지역이 유럽지역만큼이나 넓었지만, 인구는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 및 물

71) 강준만, 『미국사 산책 3』, pp.110~111.

72) 김도균, 『세계사를 뒤튼든 전쟁의 재발견』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6), pp.42~43.

73)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7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35~36. Fuller는 각 주의 권한(州權, State Rights)이 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부연합의 주된 패인(敗因)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를 얼마나 빨리 이동시키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북부군은 철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남부군은 철도를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철도를 건설할 능력도 부족하였으며, 운용할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다.<sup>75)</sup> 그래서 남부군에서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에 버지니아 전쟁터로 보낼 식량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수송을 못해서 남부군의 병사들이 굶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북부군은 철도를 따라 가설되어 있는 전신을 이용하여 전투현장에서 지휘소로 병력을 요청하고 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지휘소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시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전쟁을 주도해 나갔다.<sup>76)</sup> 전함은 철갑으로 함체를 둘러싼 장갑함을 만들고 회전식 포탑을 설치하여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증기기관식 쾌속정을 건조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초기단계이기는 하였지만 어뢰와 기뢰까지 만들었다.<sup>77)</sup>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지원병에 의하여 병력을 충원하고 있었으며, 남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1792년 제정된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부대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링컨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포고령을 공포하여 지원병을 모집하였고, 의회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6개월에서 3년까지 50만 명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75) Preston & Wise, *MEN IN ARMS*, pp.250~251. 예를 들면, 북부군은 1863년 11월 23,000명의 병력과 포병화기, 차량 등을 1,2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종전 같은 도로로 3개월 걸릴 것을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일주일 만에 이동하였다. 북부군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민간철도원을 통제하고 철도를 활용함으로써 작전상 제기되는 이동문제를 해결하였다.

76) 1860년에는 미국에 약 2만 9,000마일의 철도가 이미 건설되어 있었고, 철도를 따라 5만 마일 이상의 전선이 가설되어 전신으로 병력과 물자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황을 보고하고 전달하는 등으로 활용되었다.

77)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1863년 3월에 마침내 의회는 강제적으로 병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젊은 성인 남성 모두를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대규모에 대한 법적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총 292만여 명의 소집요구에 200만여 명이 입대하여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였다.<sup>78)</sup>

#### (6) 북부의 우세한 예비전력의 동원능력

예비전력이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모든 능력을 말한다. 가용한 예비전력의 용량(用量)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크음을 말한다. 남북전쟁에서 예비전력 동원능력의 척도가 되는 인구나 경제력의 규모, 산업생산 능력 등에서도 북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였다.

북부는 남부연합에 비하여 인구에서 2배가 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규모의 인적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고, 북부의 제조업 발전에 힘입어 재정과 경제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하고 동원함으로써 우세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 초기단계에 미국은 16,000명의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서부지역에서 인디언들과 전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전투에서의 주역은 직업군인이 아닌 동원된 시민들로서 그 숫자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략 북부군은 일부의 흑인을 포함하여 20~45세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약 200만여 명, 남부군은 흑인을 제외한 백인만으로 약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연방정부는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징병법을 만들고 병력을 동원하여 보충을 해 나갔지만, 또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당시 징병법은 20~45세의 남자를 소집하여 3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부유층에게는 병역의무 대신 군대에 가기 싫으면 300달러의 비용을 대고 면제를 받거나 자기대신

78) (구)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pp.159~162.

복무할 대리자를 입영시키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위화감을 주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79)</sup>

또한 병력소집에 반대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특히 노동자나 이민자들 및 전쟁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위가 발생하고 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863년 7월 뉴욕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방군이 출동해서 이를 진압해야만 되었다.<sup>80)</sup>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면서 예비전력을 동원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에서는 여성도 처음에는 방적공으로 동원되어 군복을 제조하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워 일을 하였으며, 어떤 여성들은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였다. 점차 야전병원에서도 간호사들로서 간호업무를 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하였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장에서 병력의 이동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등으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한 여성들도 있었다.<sup>81)</sup>

북부는 남부에 비하여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장비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에서도 압도적이었으며, 재정능력에서도 우세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부는 전쟁을 하면서도 철도를 건설하고 증기선을 제작하였고, 화포를 개량하고 물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대량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자를 철도나 증기선을 이용하여 전선으로 수송하였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산시설과 능력을 확대하면서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남부는 북부의 1/2도 안 되는 인구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농장이나 공장, 주물공장 등에서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무기와 탄약의 생산부족을 초래하여 장기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79) 박정기, 『남북전쟁(하)』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pp.187~189.

80)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p.129.

81) 해군본부, 『전쟁백과사전』 (대전: 해군인쇄장, 2007), p.283.

북부는 인적자원의 우세 외에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제조업시설에 과학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남부를 압도하는 풍부한 예비전력 가용자원과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북부군이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7) 재정 및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북부의 전투장비 양산 능력

남북전쟁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명살상을 동반한 전쟁으로, 남·북부군 합하여 6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만 해도 5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군사기술의 발전, 즉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기술이 진화된 결과에다 철도와 전신을 이용하여 요망되는 장소로 신속히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부는 인구 규모면에서 남부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많았다. 과학기술력도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제조업의 우위로 재정과 경제력에서도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연방정부 병기공장에서는 나사나 금속부품을 자르는 선반과 주물을 깎는 데 사용되는 만능 절삭기를 제작하였고 연마기를 만들어 규격화된 병기를 만들 수 있었다.<sup>82)</sup> 그러한 결과로 북부는 무기의 97%를 포함하여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장비나 물자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에 필요한 철강 재료도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북부군은 당시 카빈식 소총과 개머리판 장전식 소총을 개발하여 남부군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으며, 북부군이나 남부군 모두 초기 단계의 기관총을 만들어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다.<sup>83)</sup> 북부군은 발달된 철도를 이용,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하여 남부군에 비하여 상대적인 집중과 우세를 달성하였고, 전신을 이용하여 전투현장의 지휘관을 지휘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sup>84)</sup> 초보적이기는 하였지만 북부군은 정찰기구도 만들어 가

82)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473.

83) 신태영, 『아메리카 전쟁』, p.213.

84) Cohen, 『최고사령부』, pp.52~57.

스를 주입하고 남부군의 진영을 정찰할 목적으로 사용도 하였다.

북부군은 1862년 거대한 강신포인 패롯 건(Parrot gun)을 만들어 당시로서는 장거리인 10km까지 사격할 수 있는 대포로 사용하였다.<sup>85)</sup> 또한 북부군은 모니터(Monitor) 호를 장갑함으로 만들고 상부에 회전식 포탑을 설치하여 전함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360도 전 방향으로 함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였다.<sup>86)</sup> 스웨덴 출신의 존 에릭슨(John Ericson)은 스크류 프로펠러를 고안하여 함정에 부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기기관식 쾌속선을 건조하여 병력이나 물자수송은 물론 전투에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87)</sup>

이렇게 남북전쟁은 과거의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도입된 전쟁이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맥퍼슨(James M. McPherson)은 그의 저서인 「동란의 시대-남북전쟁과 재건(Ordeal by Fire: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에서 다음의 10가지를 남북전쟁에서 나타난 최초의 사례로 들었는데, 그것은 ①철도와 전신의 광범위한 사용 ②장갑함간의 해전 ③나선식 야포와 경화기의 광범위한 사용 ④연발총의 사용 ⑤기관총의 실험적 사용 ⑥2인 이상의 승조원이 탄 잠수정 사용 ⑦관측용 정찰기구의 사용 ⑧미국역사상 최초의 징병제 도입 ⑨참호전의 시행 ⑩군수품의 대량생산과 사용<sup>88)</sup> 등이다. 여기서 제시된 10가지 사항들의 대부분은 북부군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승리의 뒷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85) 어니스트 볼크먼, 석기용 옮김,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서울: 아미고, 2003), p.295.

86) 김철환,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서울: 양서각, 1997), p.90.

87) 볼크먼,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 pp.290~291.

88) 신태영, 『아메리카 전쟁』, p.208. 남북전쟁 시 1863년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스타운즈 리버(Stowns River) 전투에서 북부군 보병이 발사한 탄환이 200만발을 웃돌았으며, 포병이 발사한 포탄은 2만 307발, 양군이 사용한 탄약의 총 중량은 37만 5천 파운드라고 한다. 그만큼 남북전쟁은 당시로서는 과거의 어느 전쟁에서보다 많은 장비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대량의 탄약과 물자가 소모된 전쟁이었다.

### (8) 흑인과 백인의 통합을 지향한 북부사회

북부는 노예해방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단결한 가운데 인구 규모와 군사력이나 재정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하여 초기 작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들면서 전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남부는 남부인구 900만의 5%도 안 되는 백인지주들이 400만여 명의 흑인노예들을 해방하는데 반대하면서 여러 주가 연합하여 북부의 연방정부에 대항하였지만 인구와 군사력, 재정·경제력, 과학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열세하였으며 따라서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부는 노예해방을 기치로 전쟁을 하면서 흑인들도 인간적인 대우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예들은 이러한 북부의 노력에 대하여 같은 전투원 또는 보급이나 병참 등의 전투근무지원병으로서 참전하여 남부군 격파에 힘을 보탰다. 정치인들도 노예제도 해방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며, 통합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서 북부가 노예해방을 기치로 내세웠고 남부가 이에 반대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로부터 노예해방을 부르짖는 다수의 흑인들이 북부로 도주하여 인구에서 북부의 1/2도 안 되는 남부에 또 다른 타격을 안겨 주었다.

남부는 북부에 비하여 재정이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전비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폐를 남발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남부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산업화된 시대에 있어 전쟁을 하는 양측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총과 포, 탄약을 생산해야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금속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당시의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시민들은 이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식기나 농기구 등은 물론 교회의 종 등 공공의 시설 중에서도 전쟁과 관련이 없거나 일상에 필요하지 않은 금속제 물건들은 총과 포, 탄약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 헌납하였다.

## 4. 맺음말

남북전쟁은 미국이 독립이후 남북 간에 축적된 정치와 경제 및 사회적인 문제에다 노예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연방권력과 주 권력이 충돌하여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작된 전쟁으로, 1861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1865년 5월말까지 4년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남북의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은 대부분은 전쟁이 몇 개월 안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sup>89)</sup>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전으로 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동원되어 처음에는 어설픈 가운데 훈련을 하면서 부대를 만들고 전투를 시작하였다.

전쟁은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먼저 당시 남북의 인구 3,000만여 명 가운데 약 260만여 명(북부 160만, 남부 100만)이 동원되어 약 62만여 명(북부: 36만, 남부 26만)의 희생자와 50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주 전장지역이었던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많은 지역도 폐허로 변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1월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그로부터 노예는 해방되었다.<sup>90)</sup>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전쟁 종결을 얼마 앞두고 그해 4월 14일 남부의 한 청년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전쟁 후 미국은 남북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1870년대에는 전쟁 전보다 제조업 생산이 2배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 미

89)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New York Times」는 “남부에서의 소요는 30일 이내에 진압될 것이다”고 하여 남부연합의 북부에 대한 포격과 도발을 전쟁이 아닌 소요로 표현하였고, 그 기간 또한 단기간이 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Chicago Tribune」도 “전쟁이 2~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고 한다. 링컨이 처음 모집한 7만 5천 명의 병력도 이런 3개월 정도의 전투기간을 감안한 것이었다. 반면에 북부군의 서만(Sherman) 장군은 “남북전쟁이 어떤 정치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서만 장군의 예측이 적중하였다.

90)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는 수정헌법은 상원에서 1864년 4월에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는 1865년 1월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주정부의 3/4이 비준하는 1865년 12월 6일에 가서야 효력을 발휘하면서 그날부터 노예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국은 남북전쟁 이후 안으로는 더욱 강력한 미합중국을 건설할 기초를 다졌고, 밖으로는 다가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주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과 역량을 서서히 다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한 국가 내에 잠재하고 있었던 갈등과 특정한 문제, 즉 노예해방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내전의 성격으로 진행된 남북전쟁을 지금의 국가 간 총력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합동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력전 요소를 이용하여 남북전쟁 당시 전쟁양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각각의 요소와 연관시켜 평가해 볼 때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이유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링컨의 정치지도력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북부를 단결시키고 전쟁지도 및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랜트라는 적절한 군사 지도자를 발탁하였으며, 당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운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둘째,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의 결속력이다. 정부의 노예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 및 이에 동조하는 북부의 결속력과 북부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북부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능력 및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의 우위를 들 수 있다. 넷째, 북부의 인적·물적 자원 등 예비전력의 규모와 동원능력에서의 우위이다. 다섯째, 모든 인적·물적 분야에서 우세한 요소를 적절히 이용하여 북부가 총력전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91)</sup>

반면에 남부연합의 패인은 지도자 데이비스의 지도력 부족과 남부연합의 국력 즉, 인구와 자원, 재정 및 경제력, 예비전력 동원능력, 과학기술력 등에서의 상대적 열세 외에 중앙집권적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정치구조 등이

91) 이주천, 「남부연합군 패인론」, pp.129~130. 남북전쟁에서는 북부가 인구, 재정 및 경제력, 자원, 과학기술력 등 전반적으로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면서 4년씩이나 끌다가 승리한 이유는 당시 이러한 우세를 전쟁초기에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운용하지 못한 점, 적은 인구에 비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작전, 북부 연방에서 링컨 행정부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비판, 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북부의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이 전쟁을 1년만 더 지연시키면서 북부를 지치게 만들었다면 북부는 싸움을 포기하고 분리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미국의 남북전쟁은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한 첫 번째 대규모의 전쟁(Great War)으로 제조업에서 기술적인 발전의 효과와 대량생산능력이 어떻게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쟁지속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과 자원 및 생산시설 등 경제적인 요소들의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재정·경제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93)</sup> 남북전쟁은 총력전 양상이 구비해야 할 기준을 분명하고도 명백한 형태로 충족시킨 최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sup>94)</sup>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총력전, 지도자 리더십, 국민의 의지, 정치, 경제, 외교, 상비전력, 예비전력, 과학기술, 사회문화, 전쟁지속능력, 연방정부, 남부연합

92) 앞의 책, pp.127~128.

93)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94)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97.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Civil War - Focusing on the Total War -

Park, Gye-ho

The Total War is the War which a nation takes to achieve a triumph with all national strength. The advent of theory of Total War began with the book 'Total War of Nation' written by Ludendorff from Germany in 1935. Thereafter, Dakahashi Hajime from Japan wrote the book 'Modern Total War' and we are using the term 'All National Power Defense' in the Joint Standard Doctrine. There are something different in the meaning of each of them, however, they are all commonly dealing with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In this paper, I wrote about how the Total War was done by the Federal Army in the Civil War from the point of view of application of the Joint Standard Doctrinal Theory.

To win in the Total War, the leader of the nation should show his leadership to integrate all elements of the national power and the people must concentrate their will to overcome on the extreme situation. Politicians also have to endeavor to concentrate the people's will and the economic power as well as the reserve strength should perform the role in sustaining the war.

Moreover, the diplomatic efforts of the government should be set to get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assistance, and the power of science & technology should possess the intellectual power to produce combat equipments and materials that can support the aspect of the war. Also, the people's emotion and the social culture should support the triumph of

the war. At the Total War aspect in which all national elements are mobilized, systematizing national power and the leadership to do it are very important.

In the Civil War, the Federal Army got the triumph by accomplishing of above-mentioned conditions generally. Even though there are still some debates whether the Civil war is a Total War or not, it was the war that the Federal Army achieved the victory by overcoming the inferiority at the beginning of the war on the basis of the superior financial and economic power, mobilizing ability of reserve forces, and the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incoln. With that victo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 is in existence.

Key Words : Total War, Leadership, People's Will, Politics, Diplomacy, Economy, Science, Reserves Forces, Sustainability. Federal Government, Confederacy